

심판의 물, 구원의 방주 (창 7:6-24)

1. 홍수가 시작되기 전 노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7-9절) 홍수가 시작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11-12절)

7. 노아는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8.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9.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 11. 노아가 육백 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이렛날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2.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 (1) 홍수가 시작되기 전,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땅의 생물들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쌍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한 모든 '씨앗'이 방주에 승선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 (2) 홍수가 시작되자, 창조가 역전되어 세상은 혼돈의 물속으로 돌아갑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이 나뉘었던 둘째 날의 창조가 역전되고, 세상은 창조 이전의 상태인 '혼돈의 물속'으로 회귀합니다.
- (3) 하나님은 혼돈의 물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십니다: 태초에 세상이 혼돈의 물속에서 창조된 것처럼, 새로운 세상이 물속에서 재탄생할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죄로 단절된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인류의 대표입니다. 생물들이 암수 둘씩 방주에 들어갔다는 강조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조의 명령과 복이 새로운 세상에 다시 시작될 것을 암시합니다.

나눔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도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지금 우리가 겪는 혼돈과 두려움을 어떻게 새롭게 볼 수 있습니까?

2. 노아와 생물들을 방주에 다 들여보내신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16절)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참조. 마 24:42)

16.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마 24:42)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 (1) 하나님이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사람과 생물들이 방주에 탄 후, 하나님이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도 완성하십니다.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 (2) 방주의 문 사이로 심판과 구원이 갈립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의인들과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악인들,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과 심판을 피하지 못한 자들이 갈립니다. 물에 잠겨 멸망하는 옛 세상과 물에서 태어날 새로운 세상도 갈립니다. 그 문을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닫습니다.
- (3)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때'와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 은혜를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종말을 망각하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종말이 와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 (4)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이요 방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이시고, 죄로 멸망할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올리시는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습니다.

나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지금이 은혜받을 때입니다. 오늘 종말이 와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깨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3. 홍수가 계속되자 옛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17-22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참조. 요 3:5)

17. 홍수가 땅에 사십 일 동안 계속되니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19.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20. 물이 불어서 십오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21.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 요 3: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 (1) 옛 세상은 심판의 물에 완전히 잠깁니다: 홍수가 사십 일 동안 온 세상을 덮습니다.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습니다. 심판의 물의 맹렬한 기세를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 (2) 지면의 모든 생물은 쓸어버림을 당하고,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서 생명을 주신 것들에게서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거두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도, 거두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 (3) 그 이유는 '옛 세상의 심판'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온 세상을 덮은 물은 죄에 대한 심판의 물인 동시에, 세상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는 물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옛 세상을 물로 덮으시고,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십니다.

나는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옛 세상의 방식이나 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그것과 결별하기 위해 어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까?**

4. 노아가 방주 안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22-24절) 우리가 세례를 통해 경험하는 것과 어떤 점이 비슷합니까?

22.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24. 물이 백오십 일을 땅에 넘쳤더라

- (1) 노아는 방주 안에서 '옛 세상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죄로 부패한 인류와 세상의 최종 결과를 노아보다 더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노아는 죄로 멸망해 물에 잠긴 옛 세상과 완전히 결별합니다.
- (2) 노아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심'을 경험했습니다: 방주에 머문 약 1년 동안, 노아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캄캄한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심'을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는 수많은 동물들을 돌보는 책임을 하나님이 비쳐 주시는 생명의 빛과 능력으로 감당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와 배움,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 (3) 세례의 물도 심판과 죽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세례의 물은 심판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가 지배하는 옛 세상과 옛 자아에 대해 죽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세례의 물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물속에서 건짐 받은 새로운 세상의 모체가 된 것처럼, 우리는 세례의 물을 통해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 (4)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례의 물속에서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죄에서 건짐 받아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옛사람이 물에 잠겨 죽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입은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노아가 방주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준비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의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배우고 훈련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